



아빠 미케가 아들 안드레아스를, 엄마 마드리안이 딸 가브리엘라를 각각 안고 있다. 미케는 요즘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아직도 귀고리와 목걸이를 하고있다.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터
분이지 이들 부부의 생활
은 단조롭다. 신을 정도로
안정되었다. 무엇이 행복
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었다. 건강하게 가족과 함
께 지내는 것이라 대답
이다.

겨울이 워낙 길고 추운
탓일까. 휴일에도 특별한
외출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TV를 보면서 소일하거나
가끔 햇빛을 쬔다. 집 근처
공원이다.

이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
건강하게 자라 자기가 원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는 정도다.

자녀 이혼율 50%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불어
다친 불행의 한파는 이들
의 장래에도 한가닥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다. 완벽
한 사회보장, 완전고용, 완
만한 소득격차. 불과 45
5년전만 해도 스웨덴은 자
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주
의의 편리를 조화시킨 북
지국가의 이상이었다. 그
러나 바로 그 완벽한 사회
복지가 한편으로는 경제성
장의 발목을 잡았다.

막대한 공공지출도 인해
정부부채는 9천6백40억
크로나(1백조원)로 늘어
났다.

자녀에는 실업률이 10%,
이혼율이 11%를 넘어섰
다.

결혼 안해도 복지혜택 평등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소도시 솔나. 눈덮인 삼림과 울진 속에서 호수를 끼고 있는 솔나는 북구의 저울이 그렇듯 오후 4시면 호수에서 피아노 소리가 청회색 안개에 싸여 날아 저문다.

6층짜리 서민아파트의 2층에 살고 있는 미케 카르마(27) 마드리안 스톡홀름(26) 부부의 집에서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귀염둥이 가브리엘라(2·여)가 울음을 터뜨렸다. 독감에 걸려 온가쪽이 침을 흘렸다. 가브리엘라(6·남)의 유아치원에서 열린 학부모회 총회에서 마드리안이 당첨돼 푸짐한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들네 친구 사이였던

이들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8년전 집을 나와 살림을 차렸다. 10대 후반에 이들이 동거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부모들은 야단을 치기까지 했다.

1994 International Year of the Family 「세계가정의해」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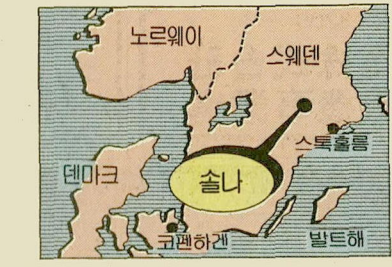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부부
로 인정하고 있고 이상하
게 여기지도 않는다.
참로(Sambo)·이들처
럼 정식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커플을 가리키는
말이다. 18세에서 24세사
이의 커플이들 사이에서는
이같이 동거율이 53%로
결혼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婚前 동거율 53%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대부분이 혼전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2~3년동
안 두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동거
기간을 거쳤다.

마드리안의 직장인 자신
의 부모가 운영하는 자동
차 부품 생산공장. 남편 미
케는 10년째 「스칸스카」라

는 골지의 선박회사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두사
람 모두 중학교만 나왔지
만 생활의 불편함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학원에 파
른 일곱살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 하락 직
업에 관계없이 동일한의
료및 자녀교육서비스가 제
공되기 때문이다. 양육비
만 하더라도 자녀가 18세
가 될 때까지 매월 일률적
으로 1명당 7백50크로나
(9만원)씩 지급된다.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는 33개에 거실이 딸린
98평방(약 30평) 크기로
5년전 정부로부터 임대받
았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매월 5천크로나(6만원)
정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세
금과 보험료를 뺀 두사람



의 월수입 1만2천크로나
(1백44만원)로 1년에 4
주(28일)인 휴가기간동안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만약 실직했을 때는 2년
간 월급의 80%까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조기
퇴직의 경우 재직시 최
고수입의 60%를 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가

유엔
설
정
「가
정
의
해」

지구촌가족 이렇게 살아야

<2>

스웨덴 同居가정 미케 카르마氏네

자녀 養育費 국가보조... “사랑하는데 形式 불필요”

복지제도는 가정에도 영
향을 미쳤다. 지난해 스웨
덴의 이혼율은 50%, 두쌍
중 한쌍이 이혼하는 셈이
다. 세계 최고 수준인 90%
의 취업률도 경제력을 확
보하는데 남성과의 대등한
지위까지 누리는 여성들이
이혼을 거릴 일유가 없
기 때문이다.

결혼과 이혼이 워낙 자
유롭다 보니 이런 유머가
유행하기도 한다. 울고 있
는 꼬마에게 친구가 이유
를 물었다. 꼬마는 새로
맞게 된 아버지가 무섭게
생겨서 그렇다고 했다. 새
아버지에 대해 듣고 난 친
구는 꼬마를 이렇게 위로
했다. 『울지마. 그 아버지
작년에 우리 아버지였는데
좋은 사람이야』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
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 여
성 1명이 평생동안 낳는 아
이의 숫자가 평균 2.13
명으로 60년대 이후 최고수
준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에 따른 혜택이 요즘
들어 더욱 확대됐기 때문
일까. 스웨덴의 출산휴가
는 자그마치 15개월(4백
50일). 이중 1년간은 월
급의 90%, 나머지 3개월
은 60%를 받는다. 육아를
담당하는 쪽이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케 부부
도 가브리엘라가 태어났을
때 출산휴가를 나눠 썼다.

“결혼 계획 없었다”
동거가 일반화됐었기 때
문에 불행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해마다 신생아의
40%는 이들 같은 동거 부부
에게서 태어난 아이이다. 그
러나 아무도 이를 부끄러
워하지 않는다. 이들이 당
당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결혼
한 부부의 자녀이거나 혼
외출생 자녀이거나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덕택도 있다.

『현재로서는 결혼 계획이
전혀 없어요. 두 사람의 결
합을 인정받고 가족을 이
루기 위해 결혼식이나 혼인
신고와 같은 공식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렇지만 만일 언젠
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대
하게 하고 싶어요. 잊지 못
할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지요』

이들에게 결혼은 「추억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 것
일까. 그래도 이들의 결혼
한 여느 부부와 다를없이
서로에게, 아이들에게 충실
하다. 동거를 처음 시작한
동거기 시절에는 해마다 서
로 평소 애 갖고 싶어하던
것을 선물한다. 지난해 마
드리안은 양자택일을, 미
케는 낚시도구를 받았다.

이들 젊은 동거 부부의 장
래희망은 「오토바이를 장
만하고 좀더 많은 곳을 여
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소
박하다. 오토바이에서 두덜까
지 모는 것이 준비돼 있고
짜여 있는 사회, 미래의
세대에 남겨진 할 일이 거
의 없는 그런 사회에서 꿈
의 크기가 제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솔나=金世媛)